

불교산악인련 조계종 개혁안 제시

중단 종파를 초월해 불교문화 창달을 목적으로 97년 6월 설립된 현재 44개 지회 3만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전국불교산악인연합회(총재 손현수)가 불교계와 조계종단의 변화를 촉구하는 방안을 발표해 주목받고 있다. 15일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연합회는 종회를 상하 양원으로 나눠 상원은 승가로, 하원은 재가로 구성하자는 안과 승가 청정화 방안 등 여섯가지 의견을 개진했다.

이번에 개진한 사항은 첫째 원로회의에서 종정을 추대하고 종정이 총무원장을 임명하는 형식으로 총무원장 임명을 5년단임제를 한다. 둘째 앞으로 출가하는 스님들은 종정스님을 은사로 해 하나의 문중을 만든다. 셋째 승중진작과 승가 정화를 위해 권력탐욕 도박 축첩을 철저히 타파해 청정한 승가를 구현한다. 넷째 종회구성을 상하 양원으로 한다. 다섯째 각 사찰별로 기획관리 등은 전문가를 선발해 맞기고 최종결과는 주지스님이 하는 것으로 사찰 운영의 전문화를 꾀한다. 여

총무원장 5년 단임제 제안 재가자 참여 종회 양원제로 대사면·북 포교 강화도 촉구

셋째 각 사암신도회장은 사암신도회에서, 교구본사 신도회는 각 사암신도회장이, 중앙신도회는 교구본사 신도회장이 선출하는 방법을 취하고 각 신도회장은 당해 사찰 주지스님이 임명하고 중앙신도회장은 총무원장 스님이 임명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등 여섯가지이다.

연합회의 이런 건의에 대해 정대스님은 "한나라의 헌법을 개정하는데도 온갖 이해세력들이 다 있어 쉽게 고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종단도 하루 이틀에 다 고칠 수는 없지만 차츰 차츰 고쳐 나갈 것"이라며 "종정중심제니 원장중심제니 생각한대로 쉽게 되는 것이 아닌 만큼 급하게 서

두르지 말고, 상하원제는 종법을 고쳐야 하므로 노력은 하겠다"고 답했다.

또 사찰 재정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신도들이 절의 모든 재정문제를 다 책임지고 끌어 나갈 수 없고 스님이 근간이 돼야 절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대스님은 총선연대의 낙선운동처럼 불교계에서도 신도들이 나서서 총선연대 같은 조직을 만들어 승가 자정운동을 펼칠 것을 제안했다.

연합회는 대사면과 대북포교에 대한 중단 차원의 관심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대스님은 "20년 전부터 대북선교부를 뒤편 가지 못하더라도 명예지사 임명하듯



15일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을 예방한 전국불교산악인연합회는 양원제와 실시 등 여섯가지 개혁방안을 건의했다.

주지를 미리 임명해 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만큼 관심이 많다"며 "북한의 명승지로 지적된 곳에 통일된 후 기독교에서 먼저 교회를 지어버리면 불교는 발을 붙이기 어렵다"고 대북포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와관련 총무원에 대북선교부를 준비하기 위해서 통일학과 교수를 초빙해 강의를 듣는 등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지난해에도 前 총무원장 고산스님을 예방해 중단 발정안을 건의하는 등 조계종단의 행보에 끊임없는 관심을 표명해

왔다.

한편 전국불교산악인연합회는 1월31일 총재 자택에서 신년하례식을 가졌다. 3월3일에는 임시총회를 개최해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 면담결과 보고와 중단 개혁을 위한 활동방안 등을 논의하고 관련 상명서도 발표할 계획이다. 3월부터는 매달 중앙회 이사단 및 임원진과 단위 산악회 간의 합동산행 및 사찰 성지순례를 통한 신심다지기에 나선다.

김지연 기자
(jygang@buddhania.com)

일터에서 쓰는 마음의 편지



김주곤 <경산대 국문과교수>

우리 나라는 경제성장을 통한 고도의 산업사회가 이루어지면서 물질만능 풍조에서 나타나는 각종 부조리, 인간소외현상, 다양한 범죄, 전통윤리의 파괴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때 인간성 회복을 위한 인간교육과 도덕적 가치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나의 일터는 바람직한 인간을 기르는 배움의 큰집이다. 흥익인간을 배출하는 대학이다. 그래서 '참마음(眞心·覺心·佛心)'을 알기 위하여 수도하면서 학생들에게 '참교육' 하는 참 스승이 되고 연구와 사회봉사로 훌륭한 학자가 되는 것을 원(願)으로 세웠다. 한 마음은 탐내고 성내며 어리석은 마음(貪·瞋·癡)으로 이 삼독심(三毒心)은 인간의 본능에서 생기는 중생심이다. 참선으로 청정한 진아(眞我)와 반야의 지혜를 갖추어 법시(法施)를 실천 수행하는 불자(佛子)가 되고 싶다.

나는 참 마음을 알기 위하여 노력했다. 그러나 육체의 고장은 찾기가 쉽지만, 마음의 고향은 찾기가 어려웠다.

근본 진리를 깨달아 인생의 보람을 느끼며 무명의 틀이 되고 싶다.

나는 심성 계발을 위하여 선(禪)을 실천해 왔다. 생활선을 하기 위하여 마음을 조절하고, 몸을 조심하고, 호흡과 식사를 조절하고, 모든 것을 조화롭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조심(調心)에서 마음은 크고, 넓고, 깊고, 깨끗하게 먹어야 한다. 무심(無心)이 안 되면 자비심으로 살고 싶다. 조심(調心) 외에 조신(調身), 조식(調食), 조의(調意), 조화(調和)의 다섯 가지 생활선의 신조를 지키며 살고 있다.

나는 바른 참선법을 알



참교육하는 참스승 되고 싶어

젊은 시절에 어떤 좌석에서 재미있는 불교 설화 하나를 소개한 적이 있다. 이 때 옆에 앉아 계신 선인(道人)같은 한 분이, "너는 영문도 모르고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고?" 하셨다. 이에 나는 "왜 제가 그 영문을 몰라요, 알지요?"라고 했다. 지금 생각해 보니 참 부끄러운 이야기다.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내가 어찌 마음이 출입하는 영문(靈門)을 알 수 있었겠는가.

마음은 모든 것의 근본이다. 마음의 근본 바탕은 마음의 고향이며 마음의 고향이란 변치 않는 마음이다. 그 마음의 변은 심성이다. 심성의 본체는 원각(圓覺) 또는 본각(本覺)이라고 하는데 형태가 둥글기 때문에 일원상(一圓相)이라고 했다. 원각인 일원상을 보면 심월(心月)을 보았다고 하고 견성(見性)했다고 한다.

우리의 본래 마음은 청정하고 원만하며 미묘한 것이다. 마음이 깨끗하면 몸이 깨끗하고, 몸이 깨끗하면 이웃이 깨끗하며, 이웃이 깨끗하면 결국 나라가 깨끗하게 될 것이다. 나는 마음의 고향을 찾아서 오탁약세를 버리고 우주의

기 위하여 지행·학명·경허선사의 <참선곡>을 연구하여 몽골국립대학, 루벤대학, 이스탄불대학 등에서 발표하여 불교의 참선을 전파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뿐 아니라 세계인들이 참선을 해 불성을 찾는 길에 동참했으면 하는 것이 나의 원이다.

지난 1월 석굴암 안에서 밤이 다하도록 좌선을 했는데 삼천대천 발들은 고요히 잠들고, 유상무상 만물들은 침묵을 지킬 때 수도정진 삼매되어 집착심이 사라지니 참선모습 밝히는 촛불은 마음까지 밝히고 미소짓는 부처님 양미간의 영동지연인 광채가 빛나고 있었다. 석굴암 앞에 모인 많은 사람들은 아침에 솟은 붉은 태양을 볼 수 없었다. 업적의 구름은 벗기지 않고 동쪽을 바라보며 해가 뜨기만 기다렸으나 무명의 구름이 마음을 덮어 볼 수 없었으니 나는 참회하러 다시 수광전에서 갔다.

오늘도 일터에서 행·주·와·어·목·동·정 등을 통하여 명심 견성하고 만법귀일(萬法歸一)하며 초생요사(超生了死)하기 위하여 마음의 편지를 쓰고 있다.

'나모' 다양한 편집도구 활용

홈페이지 만들기 ③

나모 프로그램을 다 설치했으면 바탕화면에 나모 아이콘을 만들자. 탐색기를 눌러 프로그램 파일 폴더에서 나모폴더를 찾아 들어간다.

웹에디터를 열려면 나모 실행 아이콘이 보인다. 아이콘 위에 화살표를 놓고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메뉴 창이 뜬다. 그중에 바로가기만들기 또는 단축아이콘 만들기를 누르면 나모 아이콘이 하나 더 생긴다.

새로 생긴 아이콘 위에 화살표를 놓고 마우스의 왼쪽 버튼을 누르면 바탕 화면으로 이동하면 된다.

나모 웹에디터를 실행한다. 이번엔 나모 웹에디터의 화면 및 메뉴 구성을 살펴보자.

나모 웹에디터는 제목표시줄, 메뉴표시줄, 도구막대, 리본막대, 열람문서, 문서 작업창, 상향선 등으로 화면이 구성되어 있다.

도구 막대는 새글, 열기, 저장하기, 인쇄, 부러우저로 보기, 그림 및 클립아트 삽입, 하이퍼링크 만들기, 서식, 프레임 나누기 등 많이 쓰는 편집기능을 아이콘 형식으로 모아 놓은 것이다.

리본 막대는 본문 내용의 모양을 바꾸거나 서식을 변경하고 문서를 정렬하는 등의 기능을 아이콘으로 모았다. 리본 막대는 현재 커서가 위치한 자리에 대한 문단 유형, 글자크기와 글꼴 등을 표시해 준다.

다음 회에는 본격적인 홈페이지 만들기에서 새문서를 꾸며본다.

김지연 기자



우리 모임에선

강남구청 불심회 창립

강남구청 불심회가 1월29일 봉은사에서 80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법회를 가졌다.

98년 10월부터 발족을 준비해온 불자회는 99년 4월 제1차 발기인 모임을 가지고 3월, 5월, 7월에는 성지순례도 다녀왔다. 이번 창립법회에서 회장 김경석, 사무국장 박홍기, 사무차장 양승원씨 등 12명의 임원진을 선출하고 회칙을 승인했다.

군불교총신도회 결성

군군불교총신도회(M.B.A.K)가 25일 오후4시 국방부 내 국방회관에서 결성식을 갖고 출범한다. 이날 결성식에는 군군장병들의 무운장구를 기원하는 대법회도 같이 병행한다.

클릭! 새 홈 페이지

- 불교문화포교원(<http://popyo.i.am>) - 2월 개설. 해관스님이 주지로 있는 포교원 및 현대불교문화연구소, 현대불교문화상, 계간지 불교문예 안내.
- 법안정사(<http://www.buban.com>) - 1월13일 개설돼 1달간 시범운영을 마치고 2월14일 정식 오픈. 법안정사 소개, 법회안내, 법안정사 내 모임소개, 주요행사 안내, 불교서적 베스트셀러 소개 등 자료실 운영.
- 아리한(<http://cafe.daum.net/arahan>) - 2월14일 개설. 청운고등학교 불교 동아리 '아리한'
- 영산법화사(법화종, 법화경)(<http://cafe.daum.net/buddhania.com>) - 2월15일 개설. 법화경을 공부하는 모임.
- 대한불교삼보종(http://www.sambojong.co.kr/frame00_00.htm) - 1월11일 개설. 삼보종은 1998년 석효선선사, 석법현선사가 뜻을 합쳐 1차 50개 사찰을 결집하여 창종한 종파. 현재 110개 사찰이 등록되어 있다.
- 대한불교미륵종 목포종무원(<http://miruck.jonggyo.co.kr>) - 1월 개설. 목포종무원의 위치, 연락처와 관련 자료들을 올리고 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30분에는 호국조사당화점안식이 호국원광사에서 병행된다.

교정회보 '불심' 3호 나와

전국불자교정연합회(회장 오희창) 총청지부가 발행하는 회보 <불심(佛心)> 제3호가 나왔다. 이번호에는 사진으로 보는 총청지부의 모습, 포교연구-우리가 불교를 알아야 하는 이유(김충섭) 등이 실렸다.

불기협 올 사업계획 수립

한국불교기자협회(회장 정성운)는 14일 제27차 결산총회를 열고 신년 예산 및 사업계획 등을 확정했다.

불기협은 이날 회의에서 4천8십여만원의 예산을 승인하고 '불교기자장짜'를 비롯 기자연수, 불교계 종사자 체육대회, 불교언론인의 밤 및 제4회 기자상 시상식 개최 등의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cafe.daum.net/buddhism) - 2월15일 개설. 법화경을 공부하는 모임.

대한불교삼보종(http://www.sambojong.co.kr/frame00_00.htm) - 1월11일 개설. 삼보종은 1998년 석효선선사, 석법현선사가 뜻을 합쳐 1차 50개 사찰을 결집하여 창종한 종파. 현재 110개 사찰이 등록되어 있다.

대한불교미륵종 목포종무원(<http://miruck.jonggyo.co.kr>) - 1월 개설. 목포종무원의 위치, 연락처와 관련 자료들을 올리고 있다.

홈페이지를 개설한 불자님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02)722-4162 jygang@buddhania.com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어산작법학교 학인 모집

본 학교는 불교가 이 땅에 전래된 이래 오늘날까지 연연히 이어온 어산(법배) 작법과 불전의식 전반을 연구, 계승하고 불교의식을 여법하게 집전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내는 것을 목적으로 조계종 교육법과 어산학교 설치령에 의거하여 설립, 중앙승가대학교에서 운영하는 불교의식 전문교육기관입니다. 이에 어산, 작법과 불교의식 전반을 연구, 전수할 학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모집학과

· 어산과 : 00명 · 습의과 : 00명

교육내용

- 어산과 : 1학년-기본발심선승,복장계,도량계,거불,헌작계,바라 및 승무기초 2학년-각종,상단,중단,하단,시식,바라,승무,영산계 시행, 40제
- 습의과 : 일용의식 - 도량식, 중송, 축원, 예경 상송의식 - 신중작법, 각단불공, 각종시식 제반의식 - 대령, 관육, 시다림, 점안, 방생 등
- 특강 : 불교의식사, 의식과 불교사상(경전), 불교와 문화예술, 비교종교의식, 장엄 한글의식, 영적의례, 평생의례 등

교육기간

· 어산과(법배,작법) : 2년(4학기)
· 습의과(불전의식) : 6개월

본학교의 소정 교과과정을 이수한 학인에게는 대한불교조계종에서 인정하는 졸업장을 수여함.

교육시간표

'2000학년도 시간표			
요일/과정	어산(魚山) 과정(법배, 작법)	요일/과정	습의(鰓尾) 과정(불전의식)
월	18:00-19:30(학교강의실)	수	시간조정중
목	18:00-19:30(학교강의실)	금	시간조정중

응시자격

- 종원, 종법상 결격사유가 없는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비구), 사미(나)로서
- 각 과정(어산·습의) 재가불자도 수강이 가능함.

전형방법

서류전형과 면접

제출서류

- 1) 입학원서(소정양식) 1통
- 2) 승적증명서 1통
- 3) 반명함판 사진 2매
- 4) 주민등록등본 1통 (재가자일 경우)

접수일자

2000.2.21(월) - 3.3(금),

면접일자

2000.3.4 (토) 오후3시

개강일자

어산과 : 2000.3.6 (월)
습의과 : 2000.3.8 (수)

원서교부 및 접수처

서울시 성북구 인양동 57-156번길 중앙승가대학교 기획실 (3층)
☎ 02) 921-3425

대한불교 조계종 불교어산작법학교

"향기"로 아픔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할(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

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향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 등 세계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인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인은 끝...

이 향비를 신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품의 성분이 신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낸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을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땀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혈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몸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로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 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체험사례

생리통·기미 33세권 가정주부입니다. 저의 경우는 약15년동안 허리진통으로 늘 고생해왔고 특히 그 진통으로 인해 저녁엔 깊은 잠이 들지 못하고 깨어있어야만 했습니다. 정형외과, 산부인과, 지압·교정등 치료방법을 해보았지만 진통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중 우연히 향비를 알게 되었고 향비를 착용한 5일째부터 신기하게도 단 한번의 진통없이 아침까지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향비의 작용이라는 것은 생각않고 피내에서 그런가 했는데 며칠을 두고 관찰해 보니 향비사용으로 저의 생리통이 심하고 색은 아주 검고 양이 패드에 묻히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향비를 사용한 그달에 생리의 결과는 놀라게도 생리통이 없어졌으며 색도 아주 맑고 깨끗해 짜증이 나지 않았고 물론 허리의 진통도 감소되었고 양이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좋은 향비를 개발해 널리 보급한 고려물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군포시 금정동 장영희)

매팅되는 중상에 (.) 익히시오.

-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4 허리통증이 없는 편이다.
- 5 기미가 있다.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8 허리통증이 심한 편이다.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10 생리때 뒷덜이 고통스럽다.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편 편이다.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갈 것 같다.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살이 있다.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16 목이 뻣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 18 당뇨병 감상으로 고통을 당한다.

고려물산·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4가지 이상 선택되시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